

瑞鳳塚 再發掘調査 概要

尹 溫 植*

목 차

- I. 調査 概要
- II. 日帝強占期 조사
- III. 再調査 내용
 - 1. 南墳과 北墳의 관계와 성격
 - 2. 平面 配置와 規模
 - 3. 祭祀土器(大壺)
 - 4. 瑞鳳塚 일대의 형상변경
- IV. 副葬品과 축조연대
- V. 조사 의의

* 國立中央博物館

I. 조사 개요

瑞鳳塚는 2011년 大陵園 일원 고분군(사적 512호)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路西洞古墳群에 속했다. 路西洞古墳群은 현재 표형분(3기)과 단일원분(10기) 등 13기의 封土墳이 남아있으며, 이 중 6기(金冠塚·瑞鳳塚·馬塚·雙床塚·138호·壺杆塚과 銀鈴塚)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封土의 규모는 130호(鳳凰臺古墳)와 134호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金冠塚과 瑞鳳塚의 순이다.



사진 1. 瑞鳳塚 위치와 再發掘調査 전 모습(2016. 4.)

瑞鳳塚은 日帝強占期 때 처음으로 조사되었으나(1926년과 1929년),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全貌를 알 수 없었다. 國立中央博物館은 朝鮮總督府博物館 자료공개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에 『慶州 瑞鳳塚Ⅰ－遺物篇』을 발간하였으며, 2016년 4월에 瑞鳳塚 再發掘調査를 시작하였다. 이번 再發掘調査는 瑞鳳塚의 구조와 규모를 새롭게 밝혀서 慶州市와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도심고분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더불어 『慶州 瑞鳳塚Ⅱ－遺構篇』을 발간하여 학술정보를 축적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 ▷ 허가번호: 2016-293호
- ▷ 조사목적: 瑞鳳塚 학술정보 확보 및 경주시 도심고분공원사업 기초자료 제공
- ▷ 조사(예정)기간: 2016. 4. 11. ~ 11. 2. (28주/실 작업 140일)
- ▷ 조사지점: 경북 경주시 노서동 108-1번지(지번) 일원(약 5,300m³)
- ▷ 조사기관: 國立中央博物館



사진 2. 瑞鳳塚 조사 전경

II. 日帝强占期 조사

1921년 金冠塚 발견 이후 일인학자들은 瑞鳳塚의 조사를 희망하였으나 예산의 확보가 어렵자 1926년에 경주 정차장 기관고 증설에 필요한 매립토를 제공하는 구실로 발굴하였다. 당시 발굴은 北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南墳은 埋葬主體部の 절반 이상이 주택 영역에 있어 조사를 유보하였다가 1929년에 퍼시벌 데이비드의 기금을 받아 조사하였다. 瑞鳳塚은 1927년에 개보가 공개되었으나, 정식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표 1. 日帝强占期 瑞鳳塚 조사 개요

구분	北墳	南墳
조사자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조사연도(기간)	1926년(54일)	1929년
경비조달	경동철도	Percival David 기금
木槨 규모	3.8 × 1.9m	알 수 없음
積石部 규모	17.6×10.3×4.8m(높이)	알 수 없음
封墳 규모	약 36.4m (직경)	미조사
조사공개	1927년 개봉(小泉顯夫)	2007년 회고(穴澤啄光)

Ⅲ. 재조사 내용

瑞鳳塚의 形狀은 처음에 구릉성 임야와 밭이었으나, 조사가 끝난 뒤에는 평지가 되어 점차 주택이 들어섰다. 이 일대는 1963년에 사적 39호로 지정되고(2011년에 사적 512호로 통합), 1984년에 (사적)경역정비가 이루어져 지금처럼 공원화된 모습이 되었다.

瑞鳳塚의 형상변경은 토층에 잘 나타나있다(표 2). 조사구역 내의 토층은 크게 基盤層, 신라층(整地層·봉토층), 자연퇴적층, 근·현대층(복토층·택지이용층), 공원조성층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근·현대층은 발굴이 이루어지고 다시 주택이 들어서는 등 瑞鳳塚을 파괴한 층이고, 공원조성층은 주택을 철거한 뒤 외부에서 흙을 가져와 경역을 정비한 것이다.

再發掘調査는 1984년에 복원한 封墳 기저부를 기준으로 중심 독을 남긴 뒤 근·현대층(Ⅲ층)과 공원조성층(Ⅳ층)을 제거하여 신라층(Ⅰ층)과 자연퇴적층(Ⅱ층)을 노출하였다. 신라층에서 護石列의 윤곽을 잡고 나서 瑞鳳塚의 장축을 기준으로 중심 독을 새로 설정하였으며, 자연퇴적층을 제거하여 整地層과 기반층(구 지표면)을 노출하였다.

瑞鳳塚은 근·현대층이 대부분을 파괴하여 일부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① 南墳과 北墳의 관계 및 성격을 밝히고 ② 평면 배치와 규모 등을 정확하게 측량하였으며 ③ 제사 관련 시설(토기)을 조사하고 ④ 瑞鳳塚 일대의 형상변경 과정을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 瑞鳳塚 조사구역 토층

구분		성질	두께	성격	비고
공원 조성층 (Ⅳ)		황갈색 사질점토	60~110cm	1984년 고분공원 조성	현대 폐기물 다량 포함
		황갈색 사질토 (자갈 다량 포함)			
근·현대층 (Ⅲ)	2. 택지 이용층	회(흑)갈색 사질점토	0~50cm	근·현대 생활층	시멘트 블록, 사람 머리 크기 돌 포함
	1. 복토층	회갈색 사질점토 (마사 성질 강함)	0~40cm	조사 후 되메움	근대 도자기 포함
자연퇴적층(Ⅱ)		암갈색 자갈층	0~40cm	封墳 護石 주변 분포	신라층 이후~ 근·현대층 이전
		암갈색 사질점토	0~50cm		
신라층 (Ⅰ)	2. 봉토층	적갈색 사질점토 (자갈 다량포함)	0~110cm	封墳 구성	분할성토 확인
		황갈색 사질점토			
		회흑색 점토			
	1. 整地層	잔자갈	0~20cm	整地用	護石列 주변
		회흑색 점토			
기반층		황갈색 사질점토		구 지표면	
		적갈색 사질점토 (자갈 포함)			



IV층

III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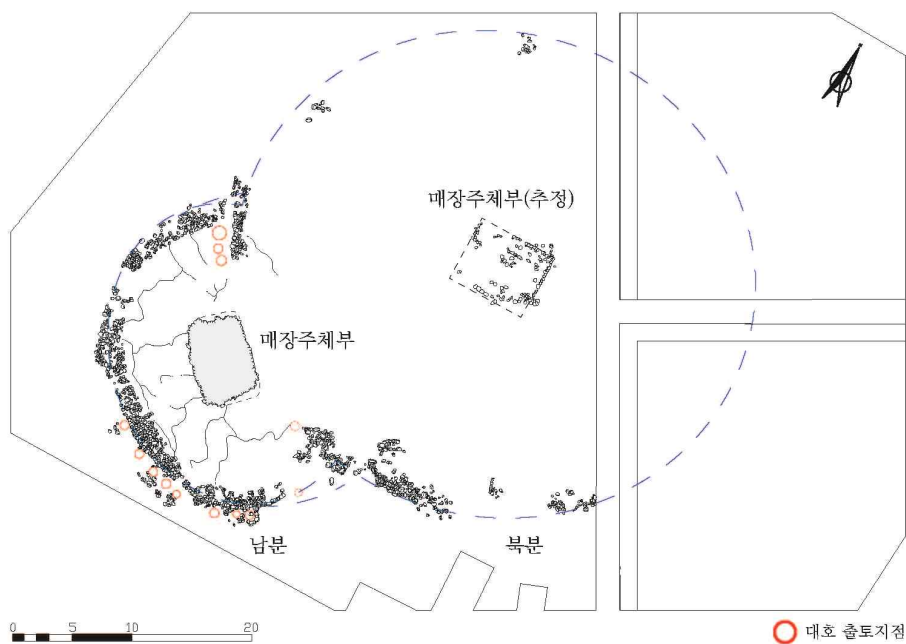
1

기반층

사진 3. 瑞鳳塚 일대 토층 모습

1. 南墳과 北墳의 관계와 성격

瑞鳳塚은 日帝強占期 발굴 당시 護石列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北墳과 南墳이 조금 작거나 비슷한 크기로 連接된 쌍분으로 여겨져 왔다. 南墳은 당초에 알려진 대로 北墳의 封墳과 護石의 일부를 걷어내고 후축된 것은 맞지만, 규모가 北墳의 절반 정도에 그쳐 大陵苑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쌍분과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南墳은 北墳의 護石列뿐만 아니라 祭祀土器(大壺)까지 파괴하고 축조되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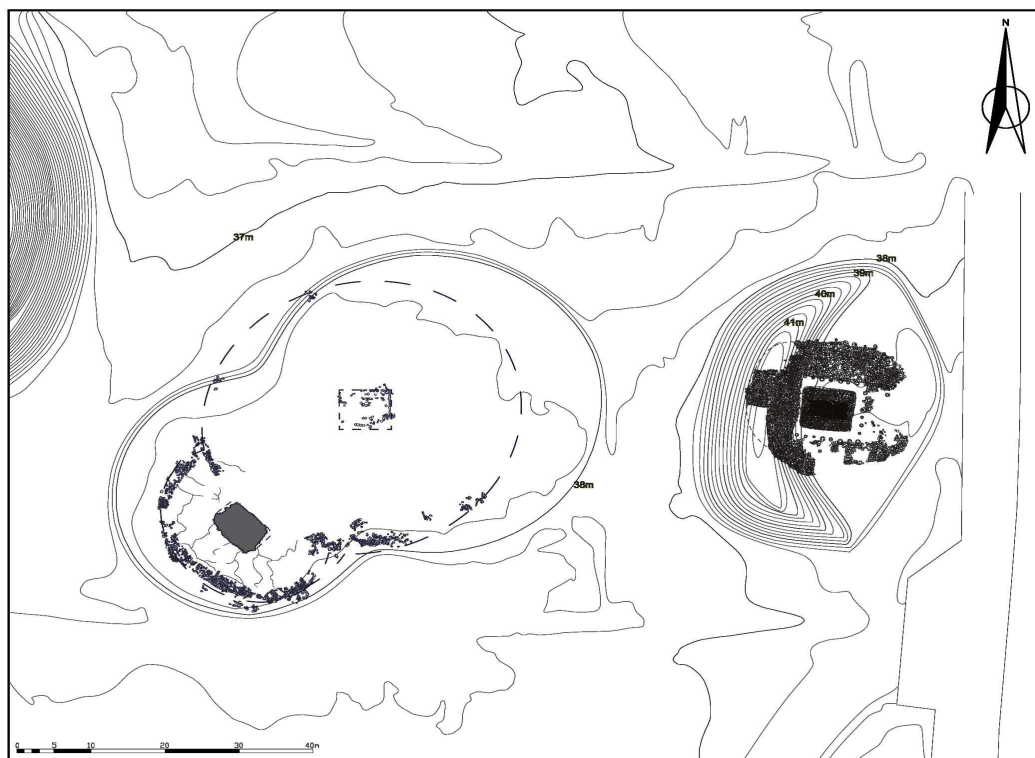
도면 1. 瑞鳳塚 평면도(좌: 南墳, 우: 北墳)



사진 4. 南墳과 北墳 連接 지점(좌: 북서쪽, 우: 남동쪽)

2. 평면 배치와 규모

瑞鳳塚는 조사가 끝난 후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지금까지 평면 배치와 규모를 특정하지 못했다. 1984년 路西洞古墳群(당시 사적 39호)을 정비할 당시에 瑞鳳塚의 封墳은 추정에 근거하여 기저부가 복원되었으나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도면 2).



도면 2. 瑞鳳塚의 평면 배치

瑞鳳塚의 전체 장축의 방향은 인접한 金冠塚에 비해 북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N-43°-E)이며, 전체 직경은 55~56m 가량이다. 北墳은 평면 형태가 타원형이며, 직경은 단장축이 각각 40m와 44m 가량으로 推算된다(北墳은 조사 진행중). 南墳은 평면 형태가 北墳에 비해 편타원형에 가깝고, 장축은 북서쪽으로 기울어져 북서-남동향이다. 장축의 직경은 약 25m이다.



사진 5. 南墳 노출 모습

3. 祭祀土器(大壺)

日帝强占期 때 조사는 대체로 副葬品이 풍부한 埋葬主體部에 집중된 반면 封墳의 내·외곽에 남아있는 祭祀土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瑞鳳塚도 祭祀土器가 조사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 당시 또는 이후 주택 건축 등(근·현대층)으로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南墳의 경우는 당시에 주택 영역 안에는 있었으나 封土가 가장 많이 보존된 서남쪽 護石列 외곽에 비교적 잘 남아있다 (사진 6).

祭祀土器(大壺)는 모두 護石列 외곽을 따라列을 지어 노출되었는데, 대부분이 파괴되어 없어지고 저부만이 남아있다. 大壺는 모두 整地層(회흑색 점토+자갈층) 위에 바로 선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돌레를 돌로 받친 사례도 있다. 南墳과 北墳에서 각각 10개체와 4개체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조사된 신라 무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다.



사진 6. 南墳 西南쪽 護石列



사진 7. 大壺 노출(左: 南墳, 右: 北墳)

4. 瑞鳳塚 일대의 형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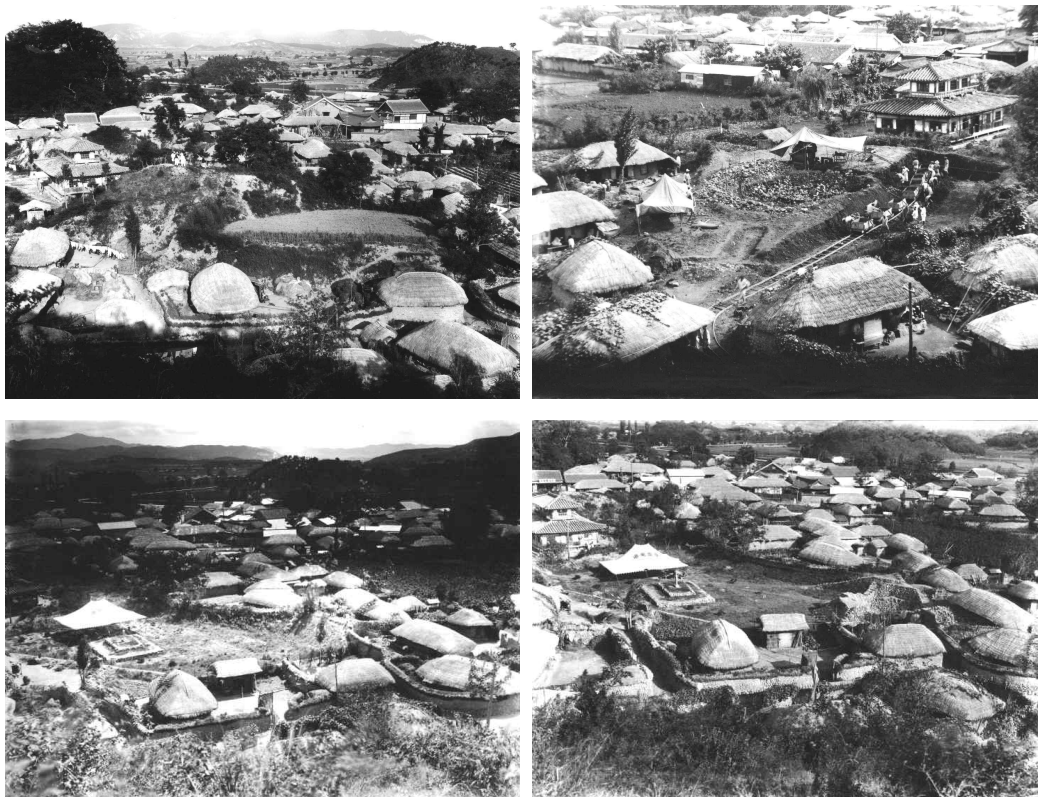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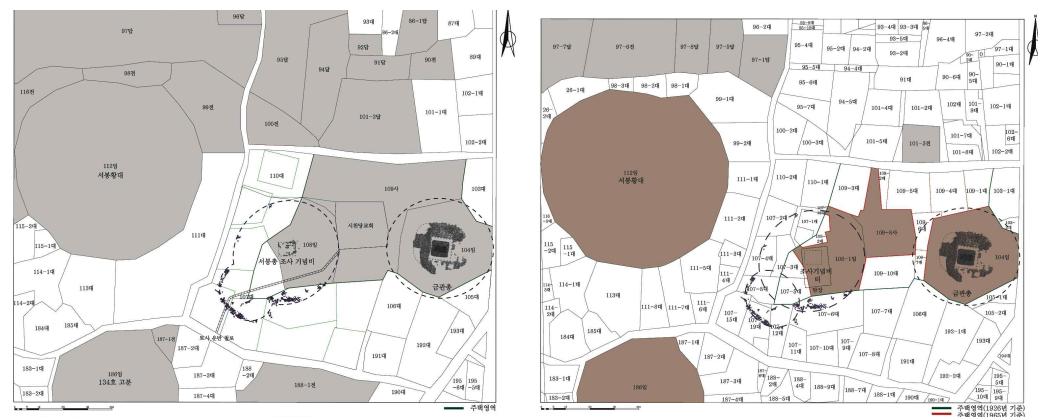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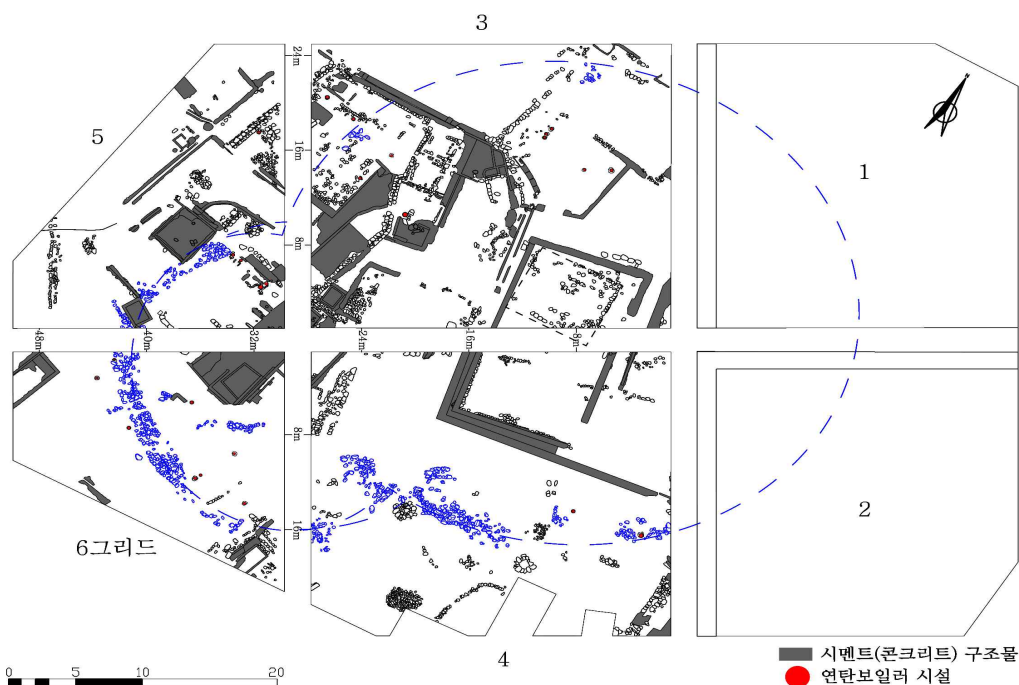


사진 8. 日帝强占期 瑞鳳塚 조사(左上에서 시계 방향으로, 조사 전, 北墳 조사, 北墳 조사 후, 南墳 조사)



도면 3. 瑞鳳塚 일대의 형상변경(左: 1926년 기준, 右: 1965년 기준)

瑞鳳塚은 조사 당시만 해도 護石列의 절반 이상이 주택 영역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埋葬主體部와 封土는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였다. 조사가 끝난 뒤 南墳과 北墳의 封墳은 모두 평지로 바뀌었으며, 대략 1950년대까지는 공터로 남아있었음이 확인된다. 1960년대 이후 주택 영역이 공터로 확장되고,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瑞鳳塚은 더욱 심각하게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瑞鳳塚을 포함한 路西洞古墳群 일대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주택이 철거되기 시작했으며, 1984년에 고분공원이 조성되었다.



도면 4. 瑞鳳塚 일대 주택지 터

IV. 副葬品과 축조연대

瑞鳳塚 北墳에서는 金冠·금허리띠·금팔찌 등이 많은 금제품과 함께 각종 金屬製品·琉璃製品과 武器 등이 들어있었다. 특히 보물 339호인 金冠은 新羅 金冠 중 유일하게 鳳凰을 장식한 것이라 주목된다. 연대에 대해서는 北墳에서 출토된 銀盒에 새긴 명문 ‘延壽元年’을 451년 또는 511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北墳 副葬品の 연대도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이다.

이에 비해 南墳은 金製耳飾 1쌍을 제외한 副葬品の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日帝強占期 유리건판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면 北墳에 비해 副葬品の 양이 적고 질이 낮다. 南墳의 연대는 北墳과 축조순서 비교와 副葬品の 연대를 근거로 北墳보다 약간 늦은 것으로 추정한다.

南墳의 연대를 정하기 위해서는 埋葬主體部에 있는 副葬品을 추가로 수습하는 것이 좋지만, 木槨 내부 副葬品은 1929년 당시 모두 수습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積石部 등 木槨 외부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에 護石列 바깥에서 大壺 등 여러 祭祀土器를 확인하여, 南墳 축조의 하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토기류들은 모두 파손되거나 결실된 상태여서 차후 정리와 복원을 해야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추정해 온 南墳의 연대에 근접한 예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 9. 瑞鳳塚 출토품(좌: 金冠, 우: ‘延壽元年’명 銀盒)



사진 10. 瑞鳳塚 南墳 護石列 외곽 출토 土器 片

V. 조사의의

瑞鳳塚 再發掘調査는 과거 朝鮮總督府博物館이 조사하지 못했던 대형 신라 능묘의 구조와 규모를 확인하고, 문화재청과 慶州市가 추진하고 있는 慶州市 도심고분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이번 발굴로 우리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